

프란치스코와 성체 성사	02
김성학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08
권정대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신비 체험	12
라파엘 디 무로	
창조물 보호를 위한 묵주기도 길잡이 - 환화의 신비 묵상 -	20
이다한	
언론(言論)의 의미에서 바라본 디지털 미디어와	26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나	
홍민용	
말씀묵상	30
최창원	
산	32
관	
박영철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첫 부르심 - 인도식 크리스마스 -	33
김민석	
호주 멜버른에 가다	38
김육	
대부님, 대부님	42
신재희	
파란눈의 브라더 밥 신부님	46
권구철	
마법의 말	51
김인주	
월 모임 안내	57



그림 : 한국 성모기사회

프란치스코와 성체 성사

김성학 사무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에 완전히 몰입되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그분의 현존과 살아있는 표지인 성체성사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성체성사 안에 주님이 생활하시고 살아계신다.’ 제단은 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핵심이자 사상과 행동들의 목표였다. 성체성사 안에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실재로서 그에게 오셨다.

성체성사는 그의 수도 생활 전체의 초점이었다. 이것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였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전의 어떤 성인도 따를 수 없는 깊은 성체 공경을 가졌다. 여러 가지 열렬한 권고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당신의 생활과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보인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사랑 넘치는 인자를 보고 넋을 잃었다. 최소한 한 번 미사참례를 안 하면 주님을 대단히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자주 성체를 영하였고, 그가 영하는 것을 보면 다른 형제들도 경건한 마음이 생길 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영하였다. 그는 성체에 대해 마땅히 바쳐야 할 온갖 공경을 다 바치면서 자

기 육신 모두를 희생으로 바쳤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받아 모실 때 마음의 제단에서 십 없이 타오르는 불길로 자기 마음을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쳤다”(2첼라노 201)

만일, 병 때문에 성당에 못 갔을 때에는 사제보고 병실에서 자신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도록 요청했다.(완덕의 거울 87) 이것마저 불가능할 때에는 그 날의 미사 독서 부분을 읽어 달라고 함으로써 미사에 영적으로 보필하곤 했다. “내가 미사에 참석할 수 없다면 나는 마치 미사에 참례하듯이 묵상하면서 또 영혼의 눈을 갖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흠송합니다.” (완덕의 거울 175)

앞의 구절에서 ‘자기 육신 모두를 희생으로 바쳤다’, ‘마음의 제단에서 십 없이 타오르는 불길로 자기 마음을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쳤다’로 표현되는 이 짧은 문장은 프란치스코가 성체 신비를 얼마나 깊게 파악하며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에게 미사 감사제는 단지 하나의 중요한 신심 행사나 경배 행사만이 아니다. 프란치스코는 거룩한 미사성제에서 우리 죄를 기워 갚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느님의 어린양과 일치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 하느님에게만 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기 위해, 자기 육신 모두를 희생으로 바쳤고, 마음의 제단에서 자기 마음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프란치스코에게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주님의 죽음을 재현하는 바로 그 신비이다. 성체는 죄인인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거룩한 제사이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받는 순간은 바로 성체를 받아 모실 때이다. 하느님은 성체 안에서 또 다시 당신의 구원 즉, 사랑과 평화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것이며, 또다시 당신의 피조물들과 화해를 이루신다.

프란치스코는 이 사상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발에 입 맞추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형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영예를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평화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형제회에 보낸 편지 12-33)

성체성사에 대한 그의 공경심과 사랑은 성체성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의 열정을 솟아오르게 한 원천이었다. 세속에 있을 때 그는 성찬 전례에서 사용된 귀중한 장식물이나 성작 등을 구입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성당에 몰래 보내곤 했다.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를 비롯하여 성 베드로 성당까지 차례로 수리했다.

성체성사에 대한 그의 신심은 그에게 사제직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경심을 일으켰으며, 그는 거룩한 성사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제들을 존경하라고 형제들에게

를 권고했다.

“로마 교회의 관습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는 성직자들에 대해 신앙심을 가지는 종은 복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비록 그분들이 죄인들이라 해도 주님 자신만이 이들을 판단하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유보시키기에 아무도 이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봉사하는 직분, 즉 자기 자신들도 이를 영하고 자신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이 직분은 다른 어느 직분보다 더 큰 것인 만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이분들에게 짓는 죄는 더 큰 것입니다.” (권고 26)

“사제 자신들도 성체를 영하고 사제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언 10)

프란치스코가 지식 많은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신비들을 그 마지막 결과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신비들에 대해 아주 깊은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프란치스코에게 성체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열매를 베푸는 성사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성체를 그리스도교적 삶의 중심으로 보고, 생활과 사도적 활동의 중심으로 그리고 또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미사를 거행할 때 거룩하고 깨끗한 지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의 참다운 제사를 존경심을 가지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 순수하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형제회에 보낸 편지 16)

하느님께만 완전히 개방된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해서만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미사성제를 거행할 것을 부탁한다.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제사를 재생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재현인, 미사 감사제를 드릴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합치해야 한다.

미사를 드리는 우리는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 전부를 바쳐야 한다.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그분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위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내놓아야 우리의 미사가 “나를 기념하는 예식”(형제회에 보낸 편지 16)이 될 것이니, “만약에 누가 다르게 거행한다면 배신자 유다가 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인”(형제회에 보낸 편지 16)이 되는 것이다.

성체 성사는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추종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완수로서의 현존이며, 전 세계의 모든 제단에서 매일 거행되는 파스

카 사건으로서의 십자가상에서의 제사의 실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실제적인 인격적 일치를 이루는 성사이다.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성체성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성체에 대해 하는 모든 말씀은 구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권정대 베드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과 친교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하느님 말씀과 신앙의 나그넷길을 지탱해주는 성사의 은총을 받는다. 나아가 성덕의 모범을 배우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안에서 성덕의 본보기와 근원을 알아보고, 성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참된 증거에서 성덕을 감지한다. 그리고 세상을 앞서 살다간 성인들과 교회가 전례력(典禮曆)에 맞추어 기념하는 성인들의 영성전통과 오랜 역사에서 성덕을 확인한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인(聖人) 중의 성인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각별히 공경해 왔다.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역사 과정에서 4가지 마리아 교의(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 혹은 평생 동정성,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 승천)가 형성되었다. 신심 측면에서 성모 마리아는 모든 성인의 으뜸으로서 특별한 공경의 대상이다.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지례’(欽崇之禮)보다는 낮지만, 성인들에게 드리는 ‘공경지례’(恭敬之禮)보다 한층 높은 ‘상경지례’(上敬之禮)로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리아를 공경한 성인들은 교회 역사상 방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마리아의 덕행을 기초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덕의 삶을 보

여주었다.

생전에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신심과 공경으로 ‘마리아의 교황’이라 불리던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요한 23세와 함께 성인으로 추대되어 2014년 4월 27일 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성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를 통해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Ⅷ)에서 바람직한 마리아론 전개를 시작할 수 있게 한 요한 23세와 교황 문장과 표어를 통해 마리아 신심을 드러내며 마리아론을 진일보하게 한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의도는 교회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안에서 인간이자 주님의 어머니로서의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이며, 협력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는 카롤 유제프 보이티와(Karol Józef Wojtyła) 주교 시절,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 마리아 교의가 포함되는 것을 찬성하였다. 이후 그는 교황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의 존재는 “공의회로부터 새로 생겨난 근본적인 차원이다”라고 선포하며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새로운 차원의 조명을 받아 회칙「구세주의 어머니」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현존하는 마리아에 관하여 논한다. 회칙은 주님의 어머니에 대한 현대의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당시 신앙 교리성 장관 라칭거 추기경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올바른 마리아론이 마리아의 활동과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칙「구세주의 어머니」에서 특별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마리아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중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서 다룬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이론적 현존이 아닌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역동적 활동을 말한다.

제삼천년기라 불리는 새 천년기(千年期)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칙「구세주의 어머니」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올바로 이해하고 공경하며, 그 신앙의 모범을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숙한 교회를 위한 사목적 지향 즉, 마리아의 복음적 일생을 조명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이해를 가능케 하기 때문인 동시에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영적 좌표를 마리아가 미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칙은 마리아를 통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동방교회를 비롯한 서방교회의 갈라진 형제들과 함께 같은 믿음으로 재일치를 모색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회칙은 요한 바오로 2세의 깊은 숙고와 묵상의 형태를 띤 영성적이고 사목적인 마리아의 교리를 피력한 신학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회칙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경우 요한 바오로 2세 개인의 단순한 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회칙은 신학 연구 방법론상 엄격하게 교리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분명하다. 회칙이 지닌 어조는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깊이와 내용 면에서 엄격성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인이 된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구세주의 어머니」의 고찰을 통하여 회칙에 내재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특별하게 현존한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회칙을 통하여 새 천년기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앞서 걸었던 그리스도계로 향한 신앙의 나그네 길에 동참하여 완덕의 모범을 따르는 일에 협력하고자 한다. 더불어 구세주의 어머니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동방교회를 비롯한 서방교회의 갈라진 형제들과 재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교 일치를 도모하고자 한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부제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신비 체험

라파엘 디 무로 (Raffaele Di Muro)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신비 여정을 다루기 위해 먼저 신비(mistica)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정의와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신비 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요소인, 관상(contemplazione)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해볼 것이다.

그 후, 변화의 일치(unione trasformante)에 이르기 위한 그의 내적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콜베의 글들과 그의 모습과 메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폴란드 성인의 생애에 담긴 영성의 두 가지 주요한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신비의 장(場)에서 위대한 거장인 교회 학자,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비와 콜베의 신비를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정점인 신비

신비라는 용어는 인간이 직접 하느님 앞에 있는 것처럼, 즉 인간 지성과 그로부터 생겨난 범주(categorie)의 중재 없이 살아가는 체험을 말한다. 그렇기에, 그가 지닌 특별한 이해를 바탕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하느님에 대한 신비와 사랑의 친교를 다룬다. 반면에, 인간의 모든 체험이 성령의 은사의 일상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자 할 때에는 신비 생활이

라고 말한다 :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한 사랑의 완성의 결과인 삶의 참 되고 고요한 양식과 일치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랑에 자신의 존재로 응답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의 결과로써 이러한 생활양식에 도달한다. 그분의 인도로 '신비'가들은 매혹되고, 그분의 은총으로 조명되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는 그분과의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변화되는 일치를 추구하도록 자극한다.

그리스도교 신비 안에서, 신학적 탐구와 묵상에 의한 지식을 넘어서는 하느님 현존과 그분의 신비 그리고 무한한 초월에 대한 믿는 이의 깨달음이 실현된다. 거룩한 신비들은 비록 결코 철저하고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적이고 친밀한 방법을 통해 맛보게 된다. 믿는 이는 신앙이 그에게 부과하는 경계 안에서 행동한다. 신비가는 중재 없이, 직접 하느님의 현존을 느낀다. 반면에, 하느님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는, 관념의 중재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다 :

그는 그분의 현존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깊은 이해를 가졌다. 성령의 특별한 활동 아래 수동성을 지닌 영혼에 선천적인 체험이 존재한다. 하느님 스스로 사람 안에, 그와 신적 현존을 인식하기 위한 능력을 받은 이성과 하나 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의 특별한 목표를 심어주신다. 하느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주도

하지 않고, 논증이나 모상들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결합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으로 의지, 감각, 상상에 의해 중재된 체험을 사용한다. 창조주의 현존은 본질적으로 정신 활동으로 인지하게 된다. 하느님에 대한 중재 없는 체험 안에서 인간은 그분의 현존을 깨닫는다. 한 사람이나 사물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직접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믿는 이는 하느님에 대한 중재된 체험을 통하여 즉 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혼 안에 새겨진 이러한 현존에 의해 야기된 결과들로 드러난 그분을 알게 된다. 이는 인간의 범주들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 하느님의 절대적인 친밀함이다:

신비가는 하느님의 실재와 신비와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인간은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모상, 묵상, 논증의 중재 없이 하느님과 일치로 들어간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에게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해주고 영속적이고 변화시키며 하나 되는 사랑을 제안하는 하느님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 신비는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이고 은총의 질서 안에서 발전한다. 그러므로 신비는 하느님을 찾고 예수의 생생한 인격과의 끊임없는 만남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정이다. 또한 신비는 지속적인 회개의 여정, 특별한 사명, 하느님 말씀의 청취 가능성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철저한 고립

안에서 직접 목적으로 이끄는 교회를 위한 특별한 봉사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대한 신앙의 성서적 체험에 대한 응답인 신앙 체험이다. 참된 신비는 근본적으로 일치미의 특성, 봉사에 대한 전체 가능성, 충만한 증여의 의지, 고유한 익명성,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투명성에 의존한다.

하느님의 존재는 계시나 환시를 통해 신비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물질적이고, 관념적이며, 순수하게 영적인 것일 수 있다. 외부 감각을 통해 느끼게 된다면 이는 물질적인 것이다:

이 경우, 시각(환시)과 말 또는 소리(환청)가 언급된다. 꿈과 같은 경우처럼, 환상을 통해 인간에게 도달한다면 이는 관념적인 것이다. 영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지하게 된다면 신비적인 현상들은 순수하게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수난 사건 동안 예수에게 가해진 상처들의 흔적(인간의 육체에 나타나는 오상)이 있다.

여기서 교회의 오랜 영성적 전통이 지니는 요소들과 인간의 학문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안내에 관련된 현상의 진정성을 조심스레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신비 생활의 본질은 위에 언급한 현상들의 반복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보다 더 깊은 일치로 인간을 이끄는 하느님을 향한 점진적으로 보다 완전한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 되고 변화되는 그분의 활동에 대한

완전한 의탁함 안에 머무는 것이다.

신비 체험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내적이고 초월적인 하느님의 현존, 신비가가 지니는 명확성과 객관성의 감각, 체험의 무상성, 수동성 또는 수용적인 활동, 상징적인 언어와 형언불가능성(ineffabilita).

내적이고 초월적인 하느님의 현존은, 직접적이고 중재 없이, 믿는 이를 향한 자신과 자신의 신비들에 대한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다. 신비가는 명확성과 객관성의 감각을 통해 신적 현존을 인식한다: 하느님은 존재하고 이는 객관적으로 이해되는 하나의 실재이다. 성령은 특별한 은총으로 인간에게 이러한 신적 현현을 받아들이고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신비 체험은 하느님 무상의 선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심리학적이 아니라 신학적인 수동성의 상태에 대해 언급한다. 전 체험을 준비하거나 예상하는 것들 없이 무상으로 신비가에게 계시된다. 그는 활동적이거나 수용적인 수동성의 상태에 머문다. 하느님은 자신의 현현을 알리고 일깨우기 위해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신비가는 오직 신적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만남의 동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는 점진적으로 보다 단순하고 보다 깊은 하느님 체험에 머무른다. 즉 모상들(반영들 또는 관념들의 중재 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활동)에 순종적으로 점유

된 상태로 남는다.

이는 인간의 신비적 상승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 변화의 일치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믿는 이는, 모든 메마름과 부주의를 극복한 다음, 비할 데 없는 평화에 자신을 바친 그의 전 존재 안에서 인격을 지닌 하느님의 현존을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즐긴다. 이 모든 것은 믿는 이에게 덕행의 실천 안에서 커다란 항구함, 확고함과 탁월함을 허락한다.

신비 체험의 또 다른 특징은 형언불가능성이다. 인간은 신비를 표현하는데 서투르다. 그는 초월자와 만나고 그의 능력들은 상징적이고 역설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하도록 이끄는 만큼, 관념들을 통하여 이 체험을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직 상징들만이 신비가가 신적 신비와의 결합을 체험한 것을(비록 여전히 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이러한 특징들은 교회와 다른 종교적 행위들의 역사 안에서 많은 신비가들의 체험과 생애 안에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신비가의 체험을 특징 지우는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신학자들에 의해 분류된 것과 비교하여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비 여정에서 수덕(ascesi)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여정

의 준비 단계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믿는 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만남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방해하는 모든 올가미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기 위해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도록 요청받는다.

일종의 고행인 이것은 하느님과의 일치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신비가의 버림(spoliazione)은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함으로써 피조물들에 집착하지 않고 부단히 덕을 실천하기 위해 정진하는 한편, 차츰차츰 보다 더 겸손해지는 하느님의 활동에 보다 더 수용적이 된다. 그러므로 신비 체험의 기초에서 발견되는 포기와 절제의 참되고 고유한 여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믿는 이는 자신의 실존 안에서 창조주의 활동에 더 열려있게 된다. 이는 은총의 효과로 예민하고 영적인 그의 능력이 최대로 눈에 띄는 향복을 얻을 때까지 세속적인 유혹과 피조물들의 다양한 영향으로부터 정화를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비 체험들은 그리스도교 수덕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고, 주님에 의해 허락된 특별한 은총을 얻는 곳에서 믿는 이에 의해 실현되는 중요한 여정의 정점이다.

고행과 투쟁의 이 여정은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일치를 실현하고 하느님의 의지에 인간의 의지를 합치시키기 위한 기초로 나타난다. 인간은 창조주와의 강력한 일치를 실현시키는 능력을 회복하고 강화시킨다. 신비 체험은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무

상의 선물이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체험과 관련하여 앞서 고려될 수 있는 기도와 보속의 여정을 통하여 이에 도달한다. 신비 생활은 창조주와의 친교와 회개의 생활 양식의 훈련을 전제로 한다. 신적 신비들에 대한 묵상에서 출발하여 세상 것들에 대한 포기를 거쳐 지극히 높으신 분의 현존이 주는 고요와 평화에 도달함으로써 마무리되는 하느님 안에서의 점진적인 머무름을 실현한다.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로마 세라피움 국제 신학대학 교수
역: 한규희 보나벤투라 신부,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창조물 보호를 위한 묵주기도 길잡이

- 환희의 신비 묵상 -

이다한 스테파노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는 장엄하게 “예”라고 순명하셨으며, 이러한 모습이 순명의 모범이 됩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아마도 프란치스칸 정신의 중요한 부분인 순명의 완벽한 본보기일 것입니다.

a.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셨으며, 그것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계획에 단호하게 “예”라는 대답을 드립니까?

b. 구체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창조물들을 소중히 돌보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창세 1,26,28; 레위 25,23 등)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

를 보고 매우 기뻐서 큰소리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하고 외칩니다. 마리아께서는 겸손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느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우리의 보호에 맡겨진 것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세계가 혹사를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b. (해안침식을 비롯하여) 우리가 최근에 본 파괴적인 자연 재난들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야기된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한 농민이 했던 “하느님께서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때때로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는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라는 말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시다.

또한 하느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비천한 처지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가 도래한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서 사회적 · 경제적 불평 등, 그리고 이와 직결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까?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

탄생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지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세상 안에 들어오셨으며 그 안에 머무셨다고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계를 위해 세상에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거두어 들였던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a.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세상과 모든 창조물을 생겨나게만 하시고서는 그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점은 하느님께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특별한 행성인 지구에서 사람 · 환경 · 동물과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그 기쁨이 우리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겸손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비천한 이들과 지구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사는 것을 행복해합니까?

b. 우리는 가장 작은 것들, 혹은 언뜻 보기에 중요한 것 같

지 않은 피조물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현존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면서 지녔던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똑같이 가득 차 있습니까?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보여주고 하느님께 봉헌하러 성전에 갑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귀한 선물인 아기 예수를 맡으면서, 그들은 기꺼이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을 돌보았고, 예수님을 하느님께 돌려드렸습니다.

a. 앞에서 묵상한 대로, 하느님의 창조를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졌으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도록 불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행복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b.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사는 종교적인 환경을 잘 알고 그것에 순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전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모든 창조물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c. 묵상을 위한 좋은 찬가는 “모든 만물이 주님께 경배하네 (All Creation Worships You)” 일 것입니다. 이 찬가는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의 선과 영광을 노래하는 큰 합창단의 작은 부분이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 성가정은 그분을 찾으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 바로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을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채우셨습니다.

a.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창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까?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장 16-17절)

우리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마리아가 그랬듯이 기쁨으로 그

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출처 : Franciscan Action Network, "Guided Rosary on Caring for
Creation," 2015.
(웹사이트: <http://franciscanaction.org>)

언론(言論)의 의미에서 바라본 디지털 미디어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나

홍민용 알로이시오

매스 미디어,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새로운 여론(輿論)의 지표가 되었고,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확장은 스마트 폰 등 모바일기기의 발전에 힘입어 개인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넘어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言論)의 역할까지 가능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이야기하였다.

솔직히 뉴스나 신문 등을 보지 않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만 보아도 내 주변과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와 다 통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화의 시대에 이러한 모습은 당연하고, 놀랍지 않다.

허나 별이 드는 곳에는 늘 그늘이 생기기 마련이다. 거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언론(言論)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개개인이 얼마나 스스로 언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오늘날 개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 개인의 말이나 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내가 SNS나 다른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내어놓는 생각과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인터넷 미디어들을 통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적극적인 네티즌이 아닌, 거기에 있는 정보만을 받아보는 소극적인 인터넷 사용자라도 내가 접하게 되는 그 수많은 정보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과 그를 통한 매체들의 발전으로 우리는 정보의 배포자가 될 수도, 언론의 한 부분이 될 수도, 또한 동시에 그 정보들을 받아보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내가 SNS 등의 인터넷매체들을 통하여 하게 되는 말이나 행동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깝고 사실에 가까운지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필자는 이것을 ‘디지털 식별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수많은 디지털 정보 속에서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식별한다는

것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디지털 식별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기준 역시 존재하고, 이러한 기준들 또한 개인과 공동체, 사회마다 다양할 수 있기에 여기서 그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글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식별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남들이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또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보게 되는 단편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파편이나 가십거리들에 쉽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가톨릭적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디지털 매체들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식별력은 마르코복음의 이 말씀에 잘 나타나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복음 선포이다.

복음 선포라고 하면 광범위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복음 선포와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무슨 상관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디지털 매체 또한 복음 선포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가벼운 일상의 일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이나, 나아가서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슈들을 말하고 나눌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가십거리들에 대한 또는 재미를 위한 정보의 나눔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적극적이고 전통적인 선교방식 즉,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알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달하게 되는 생각이나 말들, 행동들에 있어서 늘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안에서는 그러지 않으면서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헐뜯거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 안에서도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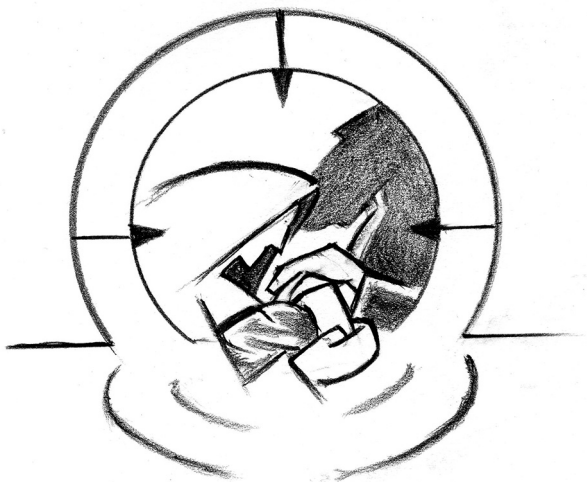
우리 신앙인들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는 복음적 가치들을 인터넷 등의 디지털 사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 또한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톨릭적 디지털 식별력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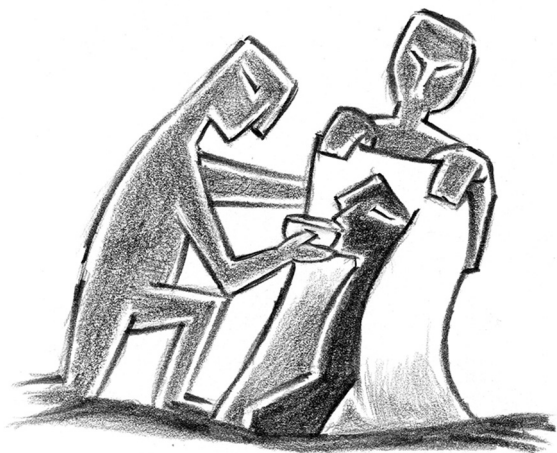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미국 보스턴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미디어를 통한 복음선포에 힘쓰고 있다.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혀지셨나이다.” (주님 봉헌 축일 감사송)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삼 괘

박영철 요셉

나는 마음의 기도서를 듣고
 님의 등불을 켜고
장미의 옷을 입고
 신뢰의 모자를 쓰고
양심의 지팡이를 짚고
 노력의 신을 신고
봉사의 발을 내디뎠
 널께로 나아가려다.

곤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인도식 크리스마스 -

김민석 안젤로

인도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성탄을 맞이했다. 더운 나라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궁금했었는데 그 의문이 다 풀렸다. 말 그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기와 싸워가면서 보내는 것이었다. 산타 할아버지 복장으로 봉사하는 형제가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 땀은 억수같이 흘리면서도 얼굴은 싱글벙글이었다. 성탄이니까!!!

성탄 이틀 전날, 당시 관구 본부에서 ‘성령 기도회’ 일을 맡고 계시던 스텔리 신부님과 함께 이웃들에게 선물할 케이크를 사러 갔다. 쇼핑 후 신부님과 함께 수도원 근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쁘게 포장된 작은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신자 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셨는지 아직도 내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다.

그날 가는 집마다 우리를 위해 짜이(인도 차)와 프라이드 바나나(기름에 튀긴 바나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참 달달하고 맛있었다. 인도 인심이 너무 후해서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성탄 하루 전날, 수도원 옆집에 사는 꼬마가 나와 저스틴(저스틴은 인도 학생 수사님들 중 가장 먼저 친해진 사람이다. 큰 키

에 작은 얼굴, 뺨뺨 마른 체구의 그는 항상 큰 소리로 날 “Kim!” 이라 부르며, 뭐 필요한 건 없는지, 그리고 자신이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봐 주었다.)에게 노래 선물을 해주었는데, 노래 제목은 ‘작은 별’이었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인도 스타일로 얼마나 멋들어지게 부르는지 그 꼬마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다.

드디어 성탄 미사가 시작되었다. 관구 본부 수도원에서 미사가 거행될 대성전까지는 약 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거리를 모든 형제와 함께 행렬했다. 행렬이 끝나자 인도 케랄라 식 미사 음악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전례가 시작되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뽕짝’과 느낌이 비슷했는데, 이런 멜로디에 주례 사제께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미사 경본을 외시니 살짝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에 살면서 이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직접 들어본 사람만이 그 매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탄 미사 후 수도원 앞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동네 아이들이 게임을 준비해 왔는데(공을 차서 장애물을 쓰러뜨리는 게임, 작은 공을 던져서 구멍 속에 넣는 게임 등), 두 번 시도할 때마다 5루피 하는 쿠폰을 구입해야 했다. 어른신들은 게임을 준비한 아이들이 기특한지 쿠폰을 많이 팔아주셨다.

한 아이가 날 신기한 눈으로 훑어지게 쳐다보며 가까이 다가와 내 얼굴을 만지고는 금세 부끄러워져 부모님 뒤로 숨었다. 그

아이 아버지께 물어보니 꼬마는 내 얼굴을 만지면 흰색이 묻어 날 거라고 생각했단다. 한국에서는 좀 까맣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내 얼굴이 신기하게 보일 정도로 희다.

외모만이 아니라 미사 전례에도 인도와 한국에 다른 면이 있다. 인도 미사 전례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신부님들의 제의다.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제의는 한국의 것보다 세배는 더 두꺼워 보였다.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휘황찬란한 제의. 유럽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그들만의 스타일로 바꾸어 쓰는 모습, 이것이 신학교에서 말로만 배웠던 “토착화”라는 것일까.

인도체험 후 강화도 신학원에 돌아왔을 때, 박문식 베네딕도 수사님께서 한글로 ‘평화’라고 크게 적힌 제의를 입으시고 미사를 집전하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인도 제의가 다시금 떠올랐다. 인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번쩍번쩍 금실 무늬,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담겨있는 ‘평화’라는 큰 글자, 이 모두가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미사 때 남녀 좌석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통 신자들이 제대를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자리다. 지역마다 왼쪽, 오른쪽이 바뀔 수는 있지만 남녀가 같은 쪽에 앉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한다.

성탄절 후에 토마스 사도가 직접 세웠다고 전해지는 신앙공동

체에 가볼 수 있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큰 성당이 들어서 있다. 토마스 사도는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도이다. 그가 인도에 까지 와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를 세웠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이곳 인도까지의 여정은 얼마나 멀고 험난했을까? 인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했을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여정이다. 내가 인도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홀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함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형제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에게서는 분명 새로운 체험이지만, 하나의 체험이기에 앞서, 나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던져 주었고, 그 묵상은 약 1년간의 인도 체험 안에서 계속 되었다.

형제들과 함께 성탄을 보내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나의 점성 수도복이 그들 회색 수도복 안에서 어색했지만, (우리 한국 관구의 수도복 색깔은 검은색이지만 인도 관구의 것은 회색이었다.) 점통 같은 더위 속에서 수도복을 입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끈으로 묶여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게 한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에 없었던 아기 예수님,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먼 곳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왜 이 먼 곳까지 불러주셨는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맑고 순수한 인도 수사님들의 눈망울을 통해서, 그리고 왔다왔었다는 아기 예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만난 이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순수한 사람, 꾸밈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도 제의 뒷모습



새 사제 Jijo와 함께

곤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옥 다윗

부산 대연동 본당에서 2년 6개월의 보좌신부를 마치고 호주로 가기 위해 서울 한남동 수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에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갈 우리 형제들이 관구 본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관구 파견 준비 중인 박유신 수사님, 미국 유학 준비 중인 이형근 수사님, 필리핀 유학 준비 중인 송대건 수사님, 그리고 저까지 넷이 모여서 과연 누가 먼저 나가게 될지 궁금해 했습니다.

하나, 둘 떠나보낼 때면 ‘내가 언제 갈 수 있으려나’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조마조마했지만, 부르심에는 다 때가 있음을 알기에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넷 중에 저는 꼴찌가 아니라 다행히(?) 세 번째로 출국했습니다.

한남동 수도원에는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시험도 합격했고, 비자 발급받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 여겼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종교 비자가 아니라 취업 비자로 발급받는 거라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호주지부의 크리스 신부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빠르게 비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냥 기다리지 않고 호주 현지에 잘 적응하기 위

해서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강남에는 정말 많은 영어 학원들이 몰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거쳐 가고 있었습니다. 학원 빌딩들은 서로 경쟁하듯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오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 골목길에 그나마 작은 규모의 학원이 보여서 그곳에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곳에서는 주눅 들지 않을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걱정과 함께 첫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교실의 느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있는 듯한 외로움이 엄습했고, 낯선 기류에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년배로 보이는 이들이 들어오면 웬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학이 아니라 취업 비자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이들이 많아서 저와 비슷한 또래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반은 수업이 길어서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호주에서 취업하고 이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던 걸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호주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호주 벽돌공들은 하루 1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린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었었죠.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호주는 노동자들이 고생한 만큼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 나라입니다.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시급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만 따지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시급이 더 높고, 임시직은 그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자본과 노동에 관한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제시한 노동의 고귀함은 우리가 얼마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생애 대부분을 양부인 성 요셉을 따라 목수로서 노동하셨으며, 목수의 아들로 불리기를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와 가난이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노동자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준비하던 시간도 다 지나고 호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0일, 멜버른에 도착했습니다. 6월에 겨울을 경험할 수 있는 남반구는 처음이라 낯설었습니다. 모든 겨울이 그렇지만 특히 멜버른의 겨울은 해도 짧고 비도 많이 와서 우울한 계절입니다. 맑은 하늘 5월은 성모님의 달인데 여기는 5월이 아닌 다른 달을 성모님께 봉헌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맑게 갠 하늘은 성모님의 품처럼 포근함을 선사해줍니다. 우리나라 못지않은 청명한 하늘을 바라본 그날은 이 나라 또한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성모님께서 제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낮에는 하늘빛으로 밤에는 달빛과 별빛으로 알려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도시 중 하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던 멜버른, 허나 공항에서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막연히 살기 좋은 도시에는 교통체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막혔습니다. 이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상상 속에 그리던 살기 좋은 도시와 멜버른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너무 초반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망은 선부른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멜버른에 새로 온 신입답게 겸손해야 된다는 걸 다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님, 대부님

신재희 베드로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성당을 다녔던 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었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 새벽 미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리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던 수녀님께서서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가족이 신앙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정을 소개해주었는데 그곳에서 저의 대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대부 대자, 대모 대녀의 관계는 영적 부모님을 나타냅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대부님과 대부님의 가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순례도 하며 우리 가족을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부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부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가끔 어머니에게 대부님의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님이 어느 수도회에 입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액자에 꽂힌 순례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대부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님이 수도회에 입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수도회라

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그 개념조차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제가 성소에 대한 생각과 확신이 생길 무렵에야 ‘수도회’와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에 관심을 두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성당에서 교리교사 활동을 하며 조금씩 성소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녀님께서 제게 대부분을 서달라는 부탁을 자연스럽게 하셨고, 제가 맡고 있던 반 아이가 대자가 되면서 저 또한 대부로서의 영적인 자식이 생겼습니다. 이후 작은 도움이나마 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생활이 끝나 갈 때쯤 저의 집(수도회)을 찾던 중에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성소 모임을 다니며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수도회를 간다고 했을 때는 고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연스럽게라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사천리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부님, 수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집으로 들어가는 마냥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도회 입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뻐던 것은 ‘잃었던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수도회 입회를 준비하면서 성소 담당 수사님께서 주신 관구 50주년을 기념하는 수사님들의 글이 실린 책자를 받아 읽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익숙한 이름과 글 위에 실린 조그만 사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옆에 있던 누나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어릴 때 함께 찍었던 사진과 비교하며, ‘맞는 거 같다’고 확신하였을 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을 통해 몇십 년 만에 대부님 가족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누나의 대모님인 대부님의 누나 수녀님이 수녀회에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어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는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또다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각자의 대부, 대모님을 찾아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대부님은 그 당시에 먼 이국땅의 선교지에 있었기에 만나지 못하였지만, 누나의 대모님을 함께 찾아가 인사드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쁘고 행복하게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수도회에 와서 저보다 수도생활을 일찍 시작하신 선배수사로, 젊은 신부로 열심히 사시는 대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으며 수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연의 일치이면서도 신비롭기도 한 이 작은 일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누나 또한 대모님을 따라 대모님이 계신 수녀회에 입회한 것은 아니지만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수도회에 입회해서 점차 배워나가고 있는 것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작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다’라는 것은 하느님 기준에서의 작음이지 우리에게 닿아있는 하느님의 작음은 헤아릴 수 없기에 사소한 작은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언제 어느 순간 하느님의 작음으로 크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도원에 있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휴가를 가면 꼭 한 번쯤은 저의 대자를 만납니다. 대부님과도 이야기했듯이 3대(?)가 함께 수도자의 길을 가보자는 목표 하에 조금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란눈의 브라더 밥 신부님

권구철 요셉

은퇴 후 몬태나에 거주하시는 신부님을 2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모셨다. 보통 한 달 일정으로 오시는데, 그동안 우리 집에 거주하시면서 지인을 만나거나 여행을 함께 가곤 하신다. 2012년은 브라더 밥 신부님께서 서품을 받으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신부님께서는 1962년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같은 해에 한국으로 소임 발령 받으시어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다.

나는 신부님의 금경축행사를 해드리기로 마음먹고 행사기획을 시작했다. 일정을 잡고, 장소를 섭외했다. 초대할 명단 작성 및 연락, 다과 준비 등을 행사 3개월 전부터 했다. 다행히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캠프나 성당 청년회 행사 등을 준비하고 진행한 경험이 많아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었다.

신부님의 금경축 행사에 100여 분 정도 초대하기로 하고, 신부님과 가까웠던 이들 주축으로 초대할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1962년도부터 2012년까지 50년 동안 신부님과 잘 아셨던 이들을 일일이 찾아서 연락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신부님께 소중한 한분 한분이기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신부님께서 1962년도에 한국에 처음 오시기 몇 해 전에 한국에 오셔서 의료선교를 하셨던 메리놀회 수녀님들을 초대했

다. 현재는 한국에 세분이 남아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중 문 요안나 수녀님은 브라더밥 신부님께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강화도에 같이 계시며 한국의 문화와 음식 등등을 몇 개월 동안 가르쳐주신 분이시다. 지금은 86세이신 문 수녀님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본국으로 안 가시고 가양동에서 동료 수녀님과 함께 살고 계신다. 가양동에 계신 메리놀 수녀님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활동 중인 레지오 단원이 차량 봉사를 해주었다.

신부님의 ‘금경축’ 소식을 전할 때마다 소식을 받은 모든 이는 너무 기뻐하면서 신부님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어떤 이는 멀리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참석하고 싶다’며 오기도 했고, 부산, 마산, 백령도 등 먼 곳에서 많은 이가 신부님의 사제서품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금경축 행사는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성모자에 복지관에서 진행했다. 복지관 야외정원이 여유 있고 아름다운데, 몇 해 동안 운영위원을 하면서 인연이 된 복지관 관장 수녀님께서 복지관강당과 야외정원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셨다.

브라더밥 신부님은 메리놀회 동료신부님들과 작은형제회 친구사제와 함께 기념미사를 공동집전하시며 사제로서 50년을 살아올 수 있음을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낀다”는 강론 말씀에 함께 참석한 우리도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다.

기념미사에 참석한 우리는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림과 동시에 ‘사랑해 당신을’을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창했다. 신부님께서는 유일하게 부를 줄 아시는 ‘산토끼’ 노래를 답가로 불러주셨고, 모두의 열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축하식 후 잔디정원에서 점심을 겸한 축하연이 진행되었다. 모든 음식은 아내와 동료들이 직접 만들고, 준비한 것이었다. 친구 10여명이 손님들을 위한 삼겹살 파티에 기쁘게 봉사했다. 친구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신부님을 잘 알기에 기꺼이 봉사하고 싶어 했다.

나와 레지오를 함께하는 신자 중 방앗간을 운영하는 형제는 50주년 기념 떡케이크를 준비했다. 행사 천막 및 의자설치 등 여러 어려운 일은 레지오 단원과 아이들, 친구들이 묵묵히 도와주었다.

이렇게 주위에서 함께 도와준 덕분에 신부님의 서품 50주년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신부님의 서품 25주년 은경축도 했었다. 신부님의 은경축과 금경축을 함께 할 수 있다니, 참으로 큰 은총이며 행복한 일이다.

신부님께서는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지인들을 일일이 포옹 해주시며 아쉬움 속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셨다. 이 글을 통해서 2012년 이대호 신부님의 금경축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과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

하고 싶다. 신부님의 수제자로서 금경축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 주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신부님께서는 금경축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시고, 한 달 일정을 보내신 후 미국으로 가셨다. 다음해인 2013년 여름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미국 신부님 집을 방문했다. 지난번 글에 서술했듯이 신부님께서 사시는 곳은 몬태나 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마을이라 우리가족은 미국 서부여행을 먼저하고 신부님 집으로 가기로 했다. 미국 서부여행을 신부님도 함께 하시기로해서 L.A공항에서 신부님과 만났다. 신부님을 1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설렘과 오랜만에 향하는 미국 여행에 대한 기대로 두근거렸다.



금경축 미사 집전 중이신 신부님과 사제단.



금경축 축하연



축하연에서 신부님과 필자

서울대교구 명일동성당 신자

마법의 말

김인주 레지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멋진 수염의 마술사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점점 소리를 높여가며 주문을 외우면 숨을 죽이며 가슴이 쿵닥쿵닥 뛰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수리수리—’ 그것은 정말 재미있고 신비한 마법의 말이었다. 집에 와서 흥내도 내어 보았다. 걸음마장이 동생 앞에서 진짜 마술사처럼 손 안에 사탕을 넣어 흔들다가 ‘수리 수리—웅얼 웅얼 펴!’ 하고 떨어뜨리면 동생은 좋아라 까르르 웃으며 또 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법의 말을 내 입으로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찬 날개를 단 것처럼 신이 났다.

어른이 되어서야 그 말이 불교 경전 ‘천수경’의 앞머리 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의 뜻은 ‘좋은 일이어 생길지어다. 지극히 깨끗한 분의 뜻이 원만히 성취되소서’이며, 경전을 읽기 전에 이 구절을 세 번 외워서 입으로 행한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는다고 한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법어인 셈이다. 이 법어가 어떻게 마술주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행운이란 내가 원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밀교 경전답게 은근히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히 하고 속죄를 하는

의식이 앞서야 한다’는 엄숙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만 마법의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가장 애용되는 마법의 말은 ‘Abracadabra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한다. 해리포터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이 주문은 히브리 랍비들이 쓰던 말인데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뜻이다. 또 서양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며 외우는 ‘메리포핀스’의 주문 ‘슈퍼칼리 프라질리스틱 엑스피알리도셔스(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역시 ‘지극히 높고 아름다운, 속죄하여 보상받는’ 등의 단어를 조합한 것을 보면 사실 마법의 말이란 소원을 빌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전능한 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는 열렬한 기도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마법의 말’은 자기암시를 위한 육아법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귀한 아이를 똑똑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요즘 인터넷서점에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마법의 말’이란 책이 엄마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한다. 어떤 세상이 되었기에 엄마들이 아이가 공부하도록 하는 마법의 말까지 외운단 말인가? 점수 최상주의 한국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여 씁쓸한 느낌마저 든다.

언어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하느님’처럼 경이로운 언어가 또 있을까!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므로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의 말,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있다고 본다. 성경은 하늘나라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마태 13,44)이라 하였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히브 4,12)' 진리와 거짓을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듯(히브 4,12)' 분별하게 하는 지혜의 보고이다.

매일의 복음에서 하루에 한 마디씩 마음에 닿는 낱말이나 구절을 찾아 마법의 말처럼 중얼거려 본 적이 있는가? 마치 든든한 끈을 잡고 있는 것처럼 힘이 솟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가을,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겨 영어성경공부를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영어로 읽으니 단어 하나하나가 더욱 가슴에 와 박힌다. 만일 라틴어나, 그리스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말씀의 의미와 힘을 더욱 깊은 감동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영어 성경공부의 첫날, 창세기 1장 2절의 한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위를 감돌고 있었다'의 '하느님의 영-devine wind'였다. 신성한 바람,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 다른 영어성경에는 'mighty wind' 또는 'spirit of God'로 되어 있고 라틴어로는 'Spiritus Dei'라고 한다. 이 단어를 하루 종일 입술에 외우며 지내보았다.

과연 그것은 마법 그 이상의 말씀이었다. 거룩한 '하느님의 영'이 문지기처럼 나의 입을 지켜주었고 나의 생각을 바른길로 이끌었으며 홍수처럼 쏟아지려는 감정을 시원한 바람으로 가리았

혀 주었다. 'devine wind'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히 불어와 평화롭고 걱정 없는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도 'devine wind'의 한 부분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그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휩싸였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마법의 말이 또 있을까?

만일 내가 아기를 다시 키운다면 나는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심어 주겠다. 태중에서부터 씨앗을 심어 언제 어디서든 즉효를 발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외우게 하겠다. 지식을 먼저 가르치면 아이는 남보다 먼저 똑똑해지고 영리해진다. 그러나 자라면서 지식이 사람 된 그릇보다 과해지면 넘치는 지식은 교만이나 집착의 먹이로 쓰이게 된다.

말씀으로 먼저 길러진 아이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그릇만큼 배움을 스스로 선택하므로 조급하지 않고 항상 넉넉하다. '지식'은 선악을 가르는 깨달음을 주어 쉽게 남과 자신을 비판하는 습관으로 이끌지만, '말씀'은 사랑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여 겸손과 행복으로 이끈다.

지난주 예쁜 첫아기를 낳은 나의 딸을 위해 촛불을 켜고 '말씀이신 하느님'을 외워본다.

‘Devine wind! Spiritus Dei!’

하느님의 영이 새아기와 엄마에게 항상 머물러 굳센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정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오전 10:30	일광 삼덕 공소	051-721-4709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부 산	기 장 성당	오후 7:30	셋째 화	051-721-2273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셋째 수	051-622-0635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대 구	월 배 성당	오후 7:30	넷째 화	053-636-1302

※ 상황에 따라 후원회 미사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사 날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후원회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르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수도성소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칙 1장)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수도 회원들은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 안에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영적인 친구’를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끈벙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2-932457

국민은행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 악습을 몰아내는 덕행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도 무지도 없습니다.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

분노도 흥분도 없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가난이 있는 곳에

탐욕과 욕심도 없습니다.

고요와 묵상이 있는 곳에

군심도 분심도 없습니다.

- 성 프란치스코

해외 선교 후원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 원하는 형제들은 관구 봉사자들에게 갈 허가를 청할 것입니다.” (회칙 12장)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재)천주교 곤벤뚜알 성프란치스코수도회

신한은행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민은행 : 295401-01-183491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구원의 빛이신 주님,

선조들의 거룩한 스고로

이 땅에 신앙을 빛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꿈베떡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들이

선조들의 신앙과 스고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하시고

해외 모든 나라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새 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뀐 후
기사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사무실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는 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림)
-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31-771-6134) → 자동이체 신청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이태영) 059-21-0614-385
농협 (이태영) 150017-51-045351
우체국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102566-01-005494

● **해외에서 송금할때**

Bank Name(은행명) : Woori Bank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702-08-193616
Beneficiary(수취인) : Park Young Cheo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7년 2월 통권 481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준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곧베틀알 프란치스코회
콜베마을(성모기사회)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 136
(우 : 12503)

전화 : 031-771-6134 (사무실)

팩스 : 031-771-2762

홈페이지 : www.ikolbe.com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